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자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보다 더 자랑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지혜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머니보다 더 근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음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폄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잠4:7,8)

“골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꾀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잠2:10~12)

다음 페이지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O O(아이의 이름)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계시의 은사를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O O(이)를 도우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보다는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어느 길을 택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O O(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것이 정로(正路)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30:21)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O O(이)의 행복이 대부분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데 달려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 지혜와 분별력은 장수와 부(富)와 인정과 보호와 즐거움과, 민족의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O O(이)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복으로 O O(이)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전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하여 O O(이)의 지혜와 분별력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O O(이)로 보게 하옵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저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O O(이)에게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사 모든 길이 화평과 생명의 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상달 칼럼



두상달 장로 가정교회원 이사장

북한에서 남한으로 못 쳐들어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춘기 아이들이 워낙 무서워서라고 한다. 사춘기 아이들은 화를 잘 내고 입 다물고 빠지기를 잘한다.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자리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엄마가 갱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와 갱년기가 겹치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처럼 아슬아슬해진다. 사춘기도 갱년기도 호르몬의 작용이라 의지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오죽하면 사춘기와 갱년기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바로 10/40 Crisis이다.

갱년기와 은퇴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갱년기와 남편의 은퇴가 겹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아마도 이때가 결혼생활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지금의 60대는 ‘낀 세대’다. 위로는 부모를 모

은퇴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많다. 소위 은퇴남편증후군(RHS, Retired Husband Syndrome)이라는 병을 앓는 것이다.

한편, 폐경기에 접어든 아내는 젊음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을 겪는다. 건강도 얼굴도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난 이렇게 온몸이 아픈데, 저 인간은 팔팔하네.’

관히 남편을 원망하게 된다.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문제 또한 엄마에게는 굉장한 부담이다. 온 힘을

얼마나 쏟을까?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해와 위로는커녕 각자의 고통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이라도 이성파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은퇴남편과 갱년기 아내는 대체로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저마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면 파국은 시간문제다.

사춘기 자녀, 갱년기 아내 그리고 나

다해 키워는데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거나 취업을 못하면 자신의 탓만 같다. 실령 대학 진학과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대로 또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평생 공들여 키워더니 뭐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버린다. 새끼새를 바라보는 어미새처럼 쓸쓸해진다. 빈 동지를 보면서 허탈함에 빠진다.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큰 고통을 겪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2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소위 은퇴이혼이 급증하기도 했다. 직장에서 일 놓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쫓겨나는 초라한 노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퇴 전 가정관리를 해야만 한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서적 공감이고 마음이다. 자상하고 배려해주는 남자, 따뜻하고 부드럽고 공감해주는 남자, 다정다감한 남자가 존중받는 세상이다.

의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감정

주님, 우리가 주를 의뢰할 때에 주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시34:22 남편이 주께서 그의 영혼을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구속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가 우울증, 분노, 근심, 시기심, 절망, 두려움, 혹은 자학적인 생각들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문제되는 영역)에 관해 기도드립니다. 이것과 다른 모든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소서. 시40:17 구원하시며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아오니, 저를 주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가 힘들어 할 때 제가 그와 함께 나아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해심을 갖고 그에게 활력을 주는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시40:1-3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견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시40:17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약3:16

남편의 감정

주님, 제 남편이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남편의 마음 깊은 곳의 감정들이 저와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으로 해방되게 하소서.

그를 자유롭게 하사 자신의 감정을 내면 속에 가둬두지 않고 필요하면 마음껏 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동시에, 그에게 웃을 수 있는 은사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주소서.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간에 목전의 환경에서 눈을 떴고 주를 신뢰 하도록 그를 가르쳐 주소서.

그에게 인내심과 자제력을 베풀어주소서. 눅11:19 그에게 “희락의 기쁨” 시1:3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오늘날도 그를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28:26

여호와에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자취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느니라. 시33:18-19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이다. 시34:22

의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최고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